

安興鎭城의 築造와 移設

심 정보*

〈목 차〉

- I. 머리말
- II. 안흥진성 이설(移設)에 대한 검토
- III. 안흥진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 IV. 맺음말

국문요약

조선 초기 수군영진의 해상방어는 고려의 해상방어론을 계승하여 선상수어(船上守禦) 원칙에 의하여 만호의 지휘하에 병기와 양식을 병선에 적재하고 선상에서 대기 근무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군의 선상수어 원칙에 의하여 성보(城堡)를 축조하지 못하다가 성종 15년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한정하여 병기와 육물(陸物)을 저장할 작은 규모의 석보(石堡)를 축조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으며, 각 포에 성보를 축조하면 만호의 거처가 된다는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성종은 “일이 이미 거행되었으니, 멈출 수 없다. 뒤에 만약에 변고가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여 축성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종 17년 10월 제포에 축성한 것을 시작으로 중종17년(1522)까지는 서해안과 동해안의 수군진도 성보를 축조하게 되었다.

안흥진성의 초축시기는 문헌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효종 4년(1653)에 화정도로 이설(移設)한 후 효종 6년부터 축성하기 시작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화정도로 이설하여 축성한 기록이 수록된 『대동지지』를 인용하여 안흥성 조사보고서에는 안흥진성이 효종 6년(1655)에 축성되었다고 하였고, 문화재청 문

*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화유산 검색창에서도 안흥성이 효종대에 축조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에는 현종 10년에 안흥진을 화정도 신진(新鎭)에서 본진(本鎭)으로 다시 이설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에는 구진(舊鎭)과 신진(新鎭)과의 이설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분명히 초축시기의 안흥진 본진(本鎭)과 화정도 신진(新鎭)의 성곽이 축조되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문헌상에 누락된 안흥진성 초축시기를 밝혀줄 수 있는 각자성석(刻字城石)이 1993년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안흥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각자성석의 명문은 「萬曆十一年癸未閏二月…」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만력(萬曆) 11년은 선조 16년(1583)에 해당되어 이 때를 안흥진성 본진의 초축시기로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안흥진성 체성에 대한 2차례의 발굴조사 결과를 통하여 두 시기의 축조기법이 확인되어 초축시기 및 수축시기로 판단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안흥진성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음에도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의 축성 및 수축사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이와같은 오류를 야기한 것은 효종 4년에 안흥진을 화정도로 이설하여 현종 10년 본진(本鎭)으로 다시 이설하기까지 16년간 안흥진이 화정도의 신진(新鎭)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화정도의 신진(新鎭)에는 축성되지 않았고, 본진이었던 구진(舊鎭)의 수축공역은 신진의 축성 사실과 구진의 수축 사실을 혼합하여 효종 7년 3월 이전에 시작하여 효종 7년 10월에 완공되었다는 오류를 낳게 되었다. 이는 숙종 1년 기록인 『비변사등록』,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에서 구진(舊鎭)에 수축공역이 8월에 시작되어 10월에 완공되었다는 3개월간의 수축공역을 왜곡한 것이다.

문헌기록에 본진(本鎭)과 구진(舊鎭)으로 수록된 현재의 안흥진성은 선조 16년(1583)에 초축되었고, 신진(新鎭)의 축성 도중인 효종 6년 8월에서 10월까지 수축공역이 완공되었다. 『비변사등록』,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에서 구진(舊鎭)의 수축년도가 적시되지 않아 혼동을 주고 있지만 총감독관인 충청도 감사 권우(權偶)의 재임시기를 적용하여 대비하면 효종 6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 수축공역에는 충청도의 5진영 중 좌영(左營) 속오군 2,200여명을 선발하고 승군(僧軍)으로 돕도록 하여 축조하였다.

효종 4년에 화정도로 이설한 안흥진 신진(新鎭)에 대한 축성은 효종 6년에 축성공역이 시작되어 효종 7년에 성곽축조는 완공되었으며, 이때는 축성공역으로 도내가 소요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충청도 전 고을에서 축성군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효종 8년에는 안흥 신진(新鎭)의 물 부족 문제로 춘치문

제가 거론되었으나 대신들과 비변사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신진(新鎭) 안흥진성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종 10년 2월 4일 예조판서 김좌명이 ‘안흥의 구진(舊鎭)이 형세가 매우 좋았는데, 신진(新鎭)으로 이주한 이후 불편한 일이 많고, 토병(土兵)들도 원망하며 괴롭게 여기고 있다’고 하자, 좌의정 허적이 안흥첨사진을 구진(舊鎭)으로 옮기고 별장(別將)도 혁파하여 신진(新鎭)에서는 수군을 모두 철수하는 것으로 건의하였으며 이를 현종이 재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효종 4년(1653)에 화정도로 이설(移設)하였던 안흥진은 현종 10년(1669)에 구진(舊鎭)인 현재의 안흥진성으로 다시 이설하게 되었다.

주제어 : 안흥진성(安興鎭城), 화정도(花亭島), 구진(舊鎭), 신진(新鎭), 각자성석(刻字城石), 축조시기(築造時期), 수축시기(修築時期), 이설(移設)

I. 머리말

조선 초기 수군영진의 해상방어는 고려의 해상방어론을 계승하여 선상수어(船上守禦) 원칙에 의하여 만호의 지휘하에 병기와 양식을 병선에 적재하고 선상에서 대기 근무하는 것이 었다. 수군의 선상근무는 수군이 방어공략을 수상(水上)에서 담당하는 제1선이 되고 적이 하륙(下陸)하면 육군이 대적한다는 방어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¹⁾ 이와 같은 수군의 선상수어 원칙에 의하여 성보(城堡)를 축조하지 못하다가 성종 15년에 이르러 집의(執義) 조숙기(曹淑沂)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한정하여 병기와 육물(陸物)을 저장할 작은 규모의 석보(石堡)를 축조할 것을 건의²⁾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포에 성보를 축조하면 만호의 거처가 된다는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고,³⁾ 성종 17년 10월에도 대신들의 찬·반이 있었으나, “성보를 설치하는 것은 군기(軍器)와 육물(陸物)을 간수하기 위한 것이고, 만호가 거처할 곳이 아니다...모든 포(浦)에 다 쌓게 한 것은 아니다.” 하고, 계속하여 “일이 이미 거행되었으니, 멈출 수 없다. 뒤에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별도의

1) 陸軍本部, 1968,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280쪽.

2) 『성종실록』, 성종 15년 10월 임오조

3) 『성종실록』, 성종 15년 10월 계미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여 축성을 강행하고 있다.⁴⁾ 그리하여 성종 17년 10월 제포에 축성⁵⁾한 것을 시작으로 중종17년(1522)까지는 서해안과 동해안의 수군진도 정보를 축조하게 되었다.

안흥진성의 초축시기는 문헌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효종 4년에 화정도로 이설한 후 효종 6년부터 축성하기 시작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화정도로 이설하여 축성한 기록이 수록된 『대동지지』를 인용하여 안흥성 조사보고서에도 안흥진성이 효종 6년(1655)에 축성되었다⁶⁾고 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유산 검색창에서도 안흥성이 효종대에 축조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에는 현종 10년에 안흥진을 화정도 새 진(鎭)에서 본진(本鎭)으로 다시 이설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에는 구진(舊鎭)과 신진(新鎭)과의 이설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분명히 초축시기의 안흥진 본진(本鎭)과 화정도 신진(新鎭)의 성곽이 축조되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문헌상에 누락된 안흥진성 초축시기를 밝혀줄 수 있는 각자성석이 1993년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안흥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⁷⁾ 각자성석의 명문은 「萬曆十一年癸未閏二月…」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만력(萬曆) 11년은 선조 16년에 해당되어 안흥진성 본진 초축시기는 선조 16년인 1583년에 축조되었음이 금석문 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귀중한 사례라 하겠다.

또한, 안흥진성 체성에 대한 2차례의 발굴조사 결과를 통하여 두 시기의 축조기법이 확인되어 초축시기 및 수축시기로 판단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안흥진성에 대한 학술회의는 문헌사 중심의 학술회의와 고고학적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한 학술회의를 분리하여 한 달사이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있었던 문헌사 중심 학술회의⁸⁾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음에도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의 축성 및 수축사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안흥진성과 관련된 문헌자료의 검토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의 축성 및 수축사실을 밝히고, 안흥진성의 축성기법에 대해서 검토보고자 한다. 이 원고는 「안흥진성의 축조와 문화재적 가치」⁹⁾라는 주제

4) 『성종실록』, 성종 17년 10월 경인조

5) 경상도(慶尙道) 제포성(齊浦城)을 쌓았는데, 높이가 13尺, 둘레가 4,316尺 3寸이다.(『성종실록』, 성종 17년 10월 경자조)

6)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安興城』, 19쪽.

7) 앞의 책, 207쪽.

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로 기초강연 한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II. 안흥진성의 이설(移設)에 대한 검토

안흥에 수군을 처음 설치할 것을 논의한 것은 세종 16년으로 병조에서 충청도 처치사의 첩문(牒文)에 의거하여 좌도(左道) 도만호(都萬戶)를 조전소(助戰所)인 안흥량(安興梁)에 파견하여 배위에서 방어토록 건의하자 왕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세종실록』, 세종 16년 10월 15일 무오조)

그러나, 세종 24년 1월에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가 안흥량(安興梁)에 병선을 세워 놓고 만호(萬戶)로 수어(守禦)하여 주기를 청해 왔으나, 우선 개착(開鑿)을 다 하고나서 시험이 끝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세종실록』, 세종 24년 1월 23일 을유조)라고 건의하자 왕이 수락하고 있어 안흥량에 수군 만호(萬戶)를 배치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 29년 4월에 충청도 도순찰사 김종서(金宗瑞)가 올린 계본(啓本)에 안흥량(安興梁)에 전함(戰艦)을 두게 하는 등의 일은 우선 정지하고, 고을 서편 지령산(智靈山)에 봉화대(烽火臺)를 쌓고 거기다 신포(信砲)를 설치하여, 만일 적선이 있거든 방포(放砲)로 서로 연락하고 인민을 들여다가 지키면서 기회를 따라 변란에 대응하게 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여(『세종실록』, 세종 29년 4월 5일 병신조) 안흥량에 군선을 배치하는 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단종 2년(1454)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에 수록된 충청도 수군 배치상대는 다음과 같다.

관명(官名)	소재지(所在地)	선수(船數)	수군수(水軍數)
수군도안무처치사 (水軍都安撫處置使)	보령현 대회이포 (帶回伊浦)	中大船 6척, 中孟船 18척, 快船 4척, 無軍中大船 6척, 追倭別孟船 6척(合 40척)	船軍 1,766명 船直 114명
좌도도만호 (左道都萬戶)	태안군 오근이포 (朽斤伊浦)	兵船 11척, 追倭別船 2척, 無軍船 2척(合 15척)	船軍 1,400명
우도도만호 (右道都萬戶)	남포현 구정(龜井)	兵船 16척, 別船 2척, 無軍船 1척(合 19척)	船軍 1,302명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태안 안흥진성의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방안』

관명(官名)	소재지(所在地)	선수(船數)	수군수(水軍數)
서천포만호(舒川浦萬戶)	장암포(長巖浦)	兵船 16척	船軍 797명
고만량만호(高巒梁萬戶)	보령현 송도포(松島浦)	兵船 10척	船軍 661명
파치도만호(波治島萬戶)	서산군 대산포(大山浦)	兵船 13척, 別船 2척, 無軍船 1척(合 16척)	船軍 790명
당진만호(唐津萬戶)	당진현 박지포(朴只浦)	兵船 13척	船軍 790명
대진만호(大津萬戶)	홍주읍내 신평현 대진(大津)	兵船 13척	船軍 794명

충청도는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 아래 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와 우도 도만호(右道都萬戶) 등 도만호 2명과 수군 만호(水軍萬戶) 5명이 배치되었으며, 배치된 선수(船數)는 모두 284척이며, 수군 병력은 선군(船軍) 8,300명, 번(番)을 서는 선직(船直)이 114명으로 모두 8,414명에 달하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안흥량에는 전선과 선군의 배치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인근 소근포에 해당하는 오근이포(朽斤伊浦)에 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흥량에 수군 배치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안군 관방조에 처음 등장한다.

안흥량수는 소근포 침절제사가 군병을 나누어서 지킨다.¹⁰⁾

라고 하여 안흥량수(安興梁戍)에 소근포 침절제사 휘하의 수군이 분병하여 배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안흥량에 가장 작은 단위의 관방시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작은 규모의 목책¹¹⁾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조 28년(1595) 6월 6일조에 안흥 만호(安興萬戶) 허수(許售)가 안흥진성 북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지령산 근처 토지가 비옥하다고 하여 개간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는 기록이 있어 안흥진에 수군만호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광해군 1년에는 승격하여¹²⁾ 광해군 7년 윤8월 7일조에는 안흥 첨사

10) 『新增東國輿地勝覽』 19, 泰安郡 關防條, ‘安興梁戍 所斤浦節制使分兵戍之’

11) 연변 각 고을에 목책(木柵)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세종실록』, 세종 16년 6월 갑자조 및 세종 18년 5월 무자조

12)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읍지』8, 『충청도읍지』3, 태안조, 아세아문화사, 675쪽.

(安興僉使) 이은중(李殷宗)이 근면성실하다고 장려할 것을 권장한 공홍수사(公洪水使)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어 안흥진이 첨사진으로 격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그리고, 인조 16년 4월 26일 전 현감 윤선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간신히 안흥진(安興鎭)에 도착하였는데, 강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¹⁴⁾ 라고 한 데서 안흥량수(安興梁戍)에서 안흥진(安興鎭)으로 승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 27년 2월 17일조에 안흥 첨사(安興僉使) 노유민(盧惟敏)이 등장하고 있어 더욱 확실하다고 하겠다.

한편, 1656년(효종 7년)에 유형원이 펴낸 『동국여지지』에는 화정도에 안흥진의 새 진성(鎭城)이 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반영이 되지 않고 “安興梁僉節制使鎭은 안흥량에 있는데 옛 소군첨절제사가 군병을 나누어서 지켰다.”¹⁵⁾고 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1. 안흥 신진(新鎭)으로 이설 및 축성

안흥진성에 대한 축성기록은 『대동지지』, 태안 진보조에 수록되어 있다.

안흥진(安興鎭)은 서쪽으로 40리에 있는데, 본래는 안흥량(安興梁)의 수자리 하는 곳으로 소군포첨사(所斤浦僉使)의 분병이 수자리하는 곳이다. 효종 4년에 화정도(花亭島)에 이설(移設)하고 (효종) 6년에 사인(士人) 김석견(金石堅)의 청으로 진성(鎭城)을 새로 세웠는데 둘레가 3천 6백 21척이다. 현종 10년에 본진(本鎭)으로 다시 돌아왔다. 제승루(制勝樓), 대변정(待變亭), 태국사(泰國寺)와 창고 3동이 있다. ○수군첨절제사 1인이 있다.

안흥진은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으며 본래 안흥량의 수자리 하는 곳이었는 데, 효종 4년(1653)에 화정도(花亭島)로 옮겨 설치하고 효종 6년에 김석견의 건의로 안흥진성을 새로 축조하였는데, 둘레는 3,621척이며, 현종 10년에 본진으

13) 안흥진이 수군진의 요충지로 부각하게 된 것은 유성룡이 왜적 방어에 수로가 더 위급하니 남아 있는 배를 모아 안흥량(安興梁) 등지에서 파수하기를 청하고(『선조실록』, 선조 30년 7월 29일 무오조), 계속하여 明 마귀도독(麻貴都督)의 접반사 장운익(張雲翼)과 좌부승지 김신원(金信元)이 안흥량(安興梁)에 배를 모아 적을 방어하는 계획이 오늘날의 급선무라고 하자 선조가 “그 말이 옳다.”(『선조실록』, 선조 30년 8월 15일 계유조)고 하여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 주효하였다고 하겠다.

14) 『인조실록』, 인조 16년 4월 기미조

15) 『東國輿地志』, 泰安郡 公署條 ‘在安興梁 舊所斤節制使分兵戍之’

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볼 때 화정도의 신진(新鎭)에 축성하기 전에 이미 구진(舊鎭)인 본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태안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고 하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보아 현재의 안흥진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성(鎭城)의 둘레 3,621척은 문맥상으로 볼 때 안흥 신진(新鎭)의 둘레가 틀림없다고 하겠으며, 당시의 성곽 둘레가 『대동지지』에 수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축조한 안흥 신진(新鎭)의 성곽 둘레 3,621척을 포백척(준수)의 기준치 46.73cm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1,692m가 된다.

이 기록은 『증보문헌비고』 권33, 관방9, 충청도 태안조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한편, 『여지도서』에는 안흥진성이 순치(順治) 11년(1654) 갑오(甲午)에 비로소 석재를 사용하여 성을 쌓았다고 하여, 효종 5년에 화정도의 안흥진성이 석축으로 축조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펴보면, 효종 4년 3월 7일에 지경연 이후원(李厚源)이 안흥진(安興鎭)을 건립할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경기(京畿)의 사인(士人) 김석견(金石堅)이 상소하여 ‘강도(江都)의 외원(外援)에 대해 조정에서 살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흥의 형세에 대해서는 신도 대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곡(海曲)에서 수십 리 안쪽으로 삼입되어 있고 호서(湖西)로 통하는 한 가닥 길이 되기 때문에 군량을 저장하고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음은 물론, 안으로는 강도와 표리(表裏)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밖으로는 호남과 영남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江都)가 있으면 안흥이 없을 수 없습니다...”¹⁶⁾고 하여, 당시 보장처의 하나인 강화도의 배후 수군진(水軍鎭)으로 안흥진이 거론되고 있었으며, 김석견의 상소를 들어 이후원이 주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원은 효종 3년 9월 3일에 ‘안흥(安興)에 양식을 저축하고 따로 대관(大官)을 두어 맡게 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상이 매우 옹기여겨 받아들였다.’¹⁷⁾고 한 바가 있어 안흥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주장하여 효종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안흥진이 강도(江都) 외원(外援)의 요충지로 부각하게 된 것은 인조 5년에 지중추부사 정응성(鄭應聖)이 상소를 올려 “강도(江都)는 바로 서울의 피난처입니다. 만약 오랑캐가 곧장 몰아쳐오는 환난이 있을 경우, 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무슨 계책으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경기 수사(京畿水使)를 통어사(統禦使)로 호칭하여 공청(公淸)·황해(黃海)의 주사들까지 통제하도록 한다면, 서로 의지하여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청나라 침입 시

16) 『효종실록』, 효종 4년 3월 계유조

17) 『효종실록』, 효종 3년 9월 임신조

강도(江都)는 바로 서울의 피난처이므로 경기수사(京畿水使)를 통어사(統禦使)로 하여 공청(公淸)·황해(黃海)의 주사(舟師)들을 통제토록 한다면, 서로 의지하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에 의한 것이다.

이후원의 안흥진 설치 주장에 대하여 효종은 대신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효종 4년 3월 13일에 예조판서 이후원(李厚源)이 다시 안흥(安興)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아뢰자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가 안흥에 대한 일은 신이 박서와 의논한 적이 있다고 하고, 이완도 아뢰기를, “만일 이후원의 말대로라면 중진(重鎭)을 설치하고 첨사(僉使)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는 한편, 감사도 행영(行營)을 설치하여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 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고 하여, 이후원이 주장한 대로 안흥(安興)에 진(鎭)을 설치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효종이 다시 이후원에게 우상(右相)과 함께 차분히 의논하여 결정하라고 하자 이후원이 당시 우의정이었던 이시백과 함께 형세를 그린 그림을 가리키면서 편리하고 좋다는 것을 성대히 진달하니, 효종이 옹기여겼다.¹⁸⁾고 하고 있어 안흥진 설치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효종이 대신들과 의논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한 안흥진은 『대동지지』에 수록된 화정도(花亭島)에 이설하기로 결정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¹⁹⁾

효종 4년 3월 18일에는 특진관 이일상(李一相)이 효종의 명으로 영의정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는데, 이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무신(武臣) 가운데 곤수(閹帥) 즉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첨사에 제수하여야 하고 토병(土兵)이 반드시 적을 것이니 그 결의 진포(鎭浦)에 있는 군사들을 옮겨 지급해 주어야 하며, 군량의 저축도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남쪽에서 올려오는 조운곡(漕運穀)을 유치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음을 보고하자²⁰⁾ 효종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효종 4년(1653) 5월 3일에 안흥鎭의 新任 僉使 이저(李埈)가 事目을 가지고 부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¹⁾

효종은 재위 5년 8월 3일에는 대신과 비변사 신하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안흥진의 군량 비축문제를 제기하고 판윤(判尹) 이완(李浣)의 의견에 따라 통

18) 『효종실록』, 효종 4년 3월 기묘조

19) 효종 6년 1월 24일 안흥(安興)을 주관하게 된 예조판서 이후원이 안흥진(安興鎭)에 성지(城池)·기계(器械)가 없음을 아뢰자 효종이 “섬의 크기와 배가 정박할 만한지를 알아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비답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의 ‘섬(島)’은 화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 『효종실록』, 효종 4년 3월 갑신조

21) 『효종실록』, 효종 4년 5월 3일조

영 관할 양곡 20여만 곡(斛) 중 3만여 곡(斛)을 안흥 부근 고을에 옮겨 두도록 하여²²⁾, 안흥진에 대한 계속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효종 6년 1월 17일에는 보장처인 강도(江都) 연변에 보(堡)를 설치토록 하고, 중원(中原)이 오래도록 어지러운데 피폐(皮弊) 만을 일삼고 눈앞의 편안한 것을 피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하고, 성지(城池)를 수리하고 군사를 단련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방책으로 삼으려 한다고 하여 삼남에 영장(營將)을 두고, 원두표는 강화(江華)를 맡고, 이후원(李厚源)은 안흥(安興)을 맡고, 이시방(李時昉)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맡고, 홍명하는 자연도를 맡아, 각자 수선(修繕)하고 곡물을 비축하게 하였다.²³⁾

효종 6년 1월 24일 안흥(安興)을 주관하게 된 예조판서 이후원은 “강도(江都)는 원두표(元斗杓)가 주관하여 이미 성취한 것이 되었으나, 안흥진(安興鎭)으로 말하면 성지(城池)·기계(器械)가 없습니다. 이는 격포(格浦)와 함께 다 같은 요충지인데,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아뢰자, 효종은 “사람들의 소문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경이 반드시 가서 형편을 살핀 뒤에야 섬의 크기와 배가 정박할 만한지를 알아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안흥에 가 보도록 하라.”²⁴⁾고 하여 이후원으로 하여금 화정도에 가서 섬의 크기와 병선이 정박할 만한지 여부 등을 살피고 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화정도에 이설된 신진(新鎭)에 축성(築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충청도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감사가 계문하였다. ... 이때 안흥(安興)[진(鎭)의 이름이다. 태안군(泰安郡)에 있다.]에 성을 쌓는데 군사를 징발하여 일을 독촉하므로 도내가 소요하고 고통을 원망하는 백성이 많았다. 사람들이 다 지진을 그 응험이라 하였다.²⁵⁾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이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양호(兩湖)에서 막 돌아왔다. 상이 안흥(安興)·격포(格浦)의 형세와, 설축(設築)하여 방수(防守)하기가 편리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후원이 조목조목 대답하고 이어서 안흥·격포·성계(聖界)·원산(圓山) 등의 그림을 상 앞에 바쳤다. 상이 이후원을 시켜 그림을 펴게 하고 가리키며 그 지리의 원근과 산천의 형세를 물었다. 한참 동안 펴 보고 이르기를, “늘 말로 전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대개는 알았다.”하였다. 병조 판서

22) 『효종실록』, 효종 5년 8월 경신조

23) 『효종실록』, 효종 6년 1월 임인조

24) 『효종실록』, 효종 6년 1월 기유조

25) 『효종실록』, 효종 6년 4월 무인조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강도(江都)를 지키려면 격포에 진(鎭)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원두표·이후원과 함께 진을 설치할 방향을 강정(講定)하고 또 앞으로 격포에 성을 쌓아 감사가 병란에 임하여 들어가 지킬 곳으로 삼으려 하였다. 좌의정 김욱(金埵)이 아뢰기를,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²⁶⁾

㉔김욱이 또 아뢰기를, “신에게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흥(安興)과 격포(格浦)에 진(鎭)을 설치할 계획을 이미 정하였는데, 신이 일찍이 충청 감사가 되어 안흥의 형세를 익히 본 바로는 실로 성을 쌓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조정이 경솔히 민력(民力)을 사용하려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호서(湖西)의 민력이 이미 탕진하여 원망과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지난번의 지진은 반드시 이에 연유한 것입니다.”²⁷⁾

㉕영돈녕부사 김욱(金埵)이 ... “또 안흥(安興)에 성 쌓는 역사를 중지하십시오.”라고 정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²⁸⁾

㉖3월 26일 인견할 때에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안흥진(安興鎭) 공사는 얼마나 이루졌는지 알 수 없으나, 한창 바쁜 농사철이라 농사일이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정지하였다가 가을건이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재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본도에 물어서 처리하라고 하였다.²⁹⁾

㉗(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안흥의 공사를 본도에 물어서 처리하는 일은 하교에 따라 공문을 띄워야 합니다. 농사일이 한창 바쁜 때인 만큼 일각이 급하니, 이 공문을 파발마를 세워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³⁰⁾

㉘(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그저께 안흥성(安興城) 공사는 때가 농번기이므로 민사(民事)가 염려되니 우선 중지하지는 뜻으로 탑전에서 진달한 바, ‘본도에 물어서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곧장 파발을 띄워 본도에 알리고 공사의 완공 여부를 물어보니, 방금 감사 권우(權堧)의 첩보에, ‘여장(女牆 : 성 위에 쌓은 낮은 담)은 3월 27일 정도면 완공될 것이나, 공해(公廩)의 경우는 초봄부터 한편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거의 절반정도 지어졌으므로, 지난해 부역에 나오지 않은 승군(僧軍)을 4월 20일까지 날수를 배정하여 일을 시켜서 완공할까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여장은 거의 완공되었으므로 절반의 군정(軍丁)을 놓아 보냈는데 다만 공해가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으니, 승군은 비록 농민이 아니더라도 허다한 공장들은 필시 농민일 것이므로 이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수십일 내에 완공할 수 있다면 중지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손을 떼기가 쉽지 않아서 한 달을 경과시킬 바에는 차라리 우선 중지하였다가 가을건이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재개

26) 『효종실록』, 효종 6년 5월 병신조
 27) 『효종실록』, 효종 7년 2월 신해조
 28) 『효종실록』, 효종 7년 2월 기미조
 29) 『비변사등록』, 효종 7년 3월 27일조
 30) 『비변사등록』, 효종 7년 3월 27일조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뢰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³¹⁾

②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속오군(東伍軍)에 대한 보(保)와 안흥(安興)에 진(鎭)을 쌓는데 대해서는 신이 늘 그 잘못을 말하였으며 성명께서도 이미 환하게 알고 계시니 빨리 혁파함이 적당하겠습니다만, 이미 쌓은 진은 변장(邊將)에게 영을 내려 지키게만 하시고 더 쌓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몇 가지 일은 혼자서 결단하기 어려울 듯하니 묘당과 의논하여 조치 하겠다.” 하였다.³²⁾

③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신은 안흥(安興)의 새 진(鎭)을 본 적이 없어서 형세가 어떠한지 모릅니다만 이저(李紘)가 말한 것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형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모두 물이 없는 것을 걱정하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과연 물이 없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이 곳의 형세는 사면이 모두 물인데 한 면은 조수(潮水)가 드나들므로 적병이 비록 오더라도 만일 굳게 지킬 수 있다면 필경 적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개펄을 파내지 않더라도 어찌 평야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만일 적이 이곳을 먼저 점거한다면 국가의 조운(漕運)하는 길이 반드시 끊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조운이 끊긴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이곳은 실로 삼남의 관문이다. 무릇 일은 충분히 강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헤아려 의논해 처리해야지 오늘 경솔하게 폐지해서는 안된다.” 하였다.³³⁾

①-⑦은 효종 6년 4월 24일 기사 내용으로 안흥진을 화정도로 옮긴 후, 비로소 축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독촉하므로 도내가 소요하고 고통을 원망하는 백성이 많았는데, 당시 있었던 지진이 안흥진 축성 때문인 것 같이 여기고 있어 신진(新鎭)의 축성공역이 순탄치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사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안흥(安興)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의 안흥진성인 안흥 본진에서 화정도로 이설한 것이 효종 4년(1653)임으로 이 이후 다시 본진(本鎭)으로 되돌아오는 현종 10년(1669)까지는 화정도의 신진(新鎭)이 안흥(安興)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한편, 안흥(安興)을 주관하게 된 예조판서 이후원이 효종 6년 1월 24일 안흥진(安興鎭)에 성지(城池)·기계(器械)가 없음을 들며 축성할 것을 건의하자, 효종이 먼저 안흥진에 가서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여 이후원이 한양을 출발

31) 『비변사등록』, 효종 7년 4월 3일조

32) 『효종실록』, 효종 7년 9월 경신조

33) 『효종실록』, 효종 8년 6월 계유조

한 것이 효종 6년 3월 12일(丁酉)이고, 태안 안흥에 도착한 날짜가 4월 23(丁丑) 일이다.³⁴⁾ 이때 이후원은 안흥에 도착하여 2일간 머물면서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효종 6년 4월 24일 기사에 안흥 신진(新鎭)의 축성 공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원이 효종에게 복명하고 대신들과 논의한 것이 5월 13일인데, 이후원이 직권으로 안흥 신진(新鎭)에 성곽을 쌓기 위한 역군 소집을 충청도 각 고을에 전달하여 도내(道內)가 소요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①-㉠은 효종 6년 5월 13일 이후원이 효종의 명으로 호서, 호남지방을 순방하고 돌아와 효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흥(安興)·격포(格浦)의 형세와, 설축(設築)하여 방수(防守)하기가 편리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후원이 조목조목 대답하고 이어서 안흥·격포·성계(聖界)·원산(圓山) 등의 그림을 효종 앞에 바치고 있다.

①-㉡, ㉢은 효종 7년 2월 2일과 10일에 계속하여 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충청 감사 재임 시에 안흥의 형세를 익히 본 바로는 실로 성을 쌓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며 축성을 중지할 것을 간청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김육이 축성을 중지할 것을 간청한 안흥(安興)은 효종 4년에 이미 화정도로 이설한 안흥을 지칭한 것으로 화정도의 형세가 성을 쌓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육이 효종 6년 4월 24일 축성군 징발과 독촉으로 인하여 도내가 소요하였다는 기사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지진’을 연계시킨 것으로 볼 때 화정도 안흥 신진(新鎭)의 축성 중지를 요청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①-㉣은 효종 7년 3월 26일 효종을 인견한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바쁜 농사철을 들어 안흥진성 축성을 중지하였다가 가을걷이 이후에 재개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효종은 본도(충청도)에 물어서 처리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때 심지원이 건의한 안흥진성 축성 중지도 마찬가지로 화정도의 안흥진성³⁵⁾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변사에서는 앞의 심지원(沈之源)의 건의에 대한 조치로 ①-㉤과 ㉥에서와 같이 신속하게 파발을 보내 공사의 완공 여부를 묻게 되자 당시 충청도 감사 권우(權楛)는 “여장(女牆)은 (효종 7년) 3월 27일 정도면 완공될

34) 李鼎夏·李種文 共編, 1917, 『우재기년(迂齋紀年)』, 二十八年 乙未, 三月 丁酉條, 四月 乙丑條

35) 즉 효종 4년(1653) 5월 3일 安興鎭의 新任 僉使 이지(李埈)가 事目을 가지고 부임하게 된 이후부터 현종 10년(1669) 2월 4일 안흥 신진(新鎭)에서 구진(舊鎭)인 본진으로 다시 이설하기로 결정한 시기까지의 안흥 및 안흥진에 관한 사실은 화정도의 안흥 신진(新鎭)에 관한 내용임을 간과하여야 한다.

것이나, 공해(公廨)의 경우는 초봄부터 한편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거의 절반 정도 지어졌으므로, 지난해 부역에 나오지 않은 승군(僧軍)을 4월 20일까지 날수를 배정하여 일을 시켜서 완공할까 한다”고 하고 있다. 비변사에서 안흥진의 축성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파발마를 보낸 날짜가 효종 7년 3월 27일인데 여장이 3월 27일이면 완공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파발마의 공문이 3월 27일에 도착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비변사에서 4월 3일에 보고한 것을 보면 파발마를 통해 보고된 충청도 감사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효종에게 아뢴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승군은 비록 농민이 아니더라도 허다한 공장들은 필시 농민일 것이므로 이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고, 수십일 내에 완공할 수 있다면 중지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손을 떼기가 쉽잖아서 한 달을 경과시킬 바에는 차라리 우선 중지하였다가 가을걷이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재개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하여 효종의 허락을 받고 있다.

이를 볼 때 효종 6년³⁶⁷에 화정도에 축성하기 시작한 신축 안흥진성의 체성은 효종 7년 3월 27일경에는 여장까지 완축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나 공해(公廨) 시설은 절반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4월 3일 왕명을 받아 중단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효종 7년 9월 15일에 김육은 다시 안흥진의 축성공사가 빨리 혁파함이 적당 하겠습니까만, 이미 쌓은 진은 변장(邊將)에게 영을 내려 지키게만 하시고 더 쌓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비변사의 품계로 중단되었던 안흥진의 공역이 가을걷이 이후 재개되자 김육이 더 쌓지 말도록 건의(1-㉔)한 것이다.

김육이 이미 쌓은 진은 변장(邊將)에게 영을 내려 지키게만 하자고 건의하는 것으로 볼 때 안흥 신진(新鎭)의 성곽축조는 완축단계에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효종은 김육의 축성 중지론에 대하여 ‘묘당과 의논하여 조치하겠다.’고 한 후속조치로서 대신들과 비변사 신하들의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 1-㉕의 내용이다.

이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안흥(安興) 신진(新鎭)을 본 적이 없어서 형세가 어떠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저(李紘)가 말한 것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

³⁶⁷ 『비변사등록』 효종 7년 4월 3일자 기사 내용 중 충청감사 권우(權隅)의 첩보에, 여장은 거의 완공되었으므로 절반의 군정(軍丁)을 놓아 보냈다고 하고, 공해(公廨)의 경우는 지난해 부역에 나오지 않은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완공할까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효종 6년부터 안흥 신진(新鎭)에 대한 축성공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면 형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모두 물이 없는 것을 걱정하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조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이곳의 형세가 사면이 모두 물이고 한 면은 조수(潮水)가 드나들므로 적병이 비록 오더라도 적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평지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자 영의정 정태화가 “만일 적이 이곳을 먼저 점거한다면 국가의 조운(漕運)하는 길이 반드시 끊길 것입니다.”라고 조운이 끊길 것을 우려하자 효종이 이를 받아들여 이곳은 실로 삼남의 관문이니 경솔하게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안흥진을 화정도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화정도에 이설된 신진(新鎭) 안흥진성 축조공사는 효종 6년 축성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축성 공역을 독촉하여 백성들의 원성도 있었고 충청도 감사를 역임한 김육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효종의 축성 의지로 완축하기에 이르렀으며, 효종 8년 대신들과 비변사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신진(新鎭) 안흥진성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안흥 구진(舊鎭)의 수축(修築)

한편,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논의가 새롭게 전개되어 이를 관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①안흥의 지세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凸’자 형태로 불록하게 바다 가운데로 40여리나 들어가 있습니다. 三南의 배가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달리 길이 없을 뿐 아니라 돛단배가 하루면 강도(江都)에 도달할 수 있으니 이른바 수로의 요충이며 강도(江都)의 문호입니다. 옛날 탄환(彈丸)으로 파괴된 성(城)이 있으니 바로 첨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②진(鎭)의 서쪽 포구 건너에 작은 섬이 있는데 뱃길이 가깝고 요망(瞭望)하기에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사년에 조정에서 이저(李埈)를 첨사로 삼아 새 진을 이곳에 계획하였으나 많은 관사(官舍)를 일시에 지으려면 물력의 소모가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③그러므로 상신(相臣) 이후원(李厚源)이 직접 그 사정을 살피고 조정으로 돌아와 아뢰기를 ‘신진은 비록 버릴수는 없으나 섬이 마르기 쉽고 바람부는 때가 많아 도리어 구진(舊鎭)을 수축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어전에서 이와같이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④그리하여 그 당시 충청병사 유혁연(柳赫然)으로 하여금 안흥으로 달려가 그 성터를 참작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지원(李枝遠)으로 안흥첨사(安興僉使)로 삼고 황사성(黃士誠)을 소근첨사(所斤僉使)로 삼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감사 권우(權耦)를 총감독의 책무를 받도록 하여 8월에 공역을 시작하여 10월에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⑤지형이 높고 험준하며 성은 작으면서도 견고하고, 또 그

3면에 조수가 들어오면 바다를 이루고 조수가 물러가면 물으로 변하여 적이 만약 배를 타고 공격해 오면 물이 되어 선박(船舶)이 걸릴 우려가 있고, 물으로 공격해 오면 조수가 들어와 오래 싸우기 어려운 형편이니 그 적을 맞이하는 바가 다만 한나절 뿐이라 성은 비록 단약하나 이를 오히려 믿을 수 있습니다. 동에는 육로(陸路)가 있어 모양은 마치 말의 등과 같아 좌우에 조수가 밀리면 한 쪽에서 적을 막기가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 성 안에 샘은 다만 3곳 뿐이나 몇 길 깊이 파면 물이 떨어질 걱정은 없고, 성 밖에 또 사람들 모르게 몰래 길어 올 샘 두어 곳이 있으니 물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⑥그러므로 조정에서 지킬만한 곳이라 하여 식량을 많이 쌓고 기계를 많이 저장하였다가 일이 있으면 감사가 들어가 지키며 강도의 명령을 통하게 하였습니다. 당시는 첨사가 주관하여 수축하였으나 그 후 감사가 ‘첨사가 배를 타고 싸우러 나간 뒤에는 달리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중군(中軍)을 보내는 것만 못하다’고 치계하여 결정하고 군관 칭호의 중군이 전적으로 지켰습니다. 또 그 후에 감사는 ‘중군은 조정의 차출이 아니므로 명위(名位)가 가벼워 통솔할 수 없다’고 치계해서 변통하여 다시 첨사가 주관하게 하였고, 또 그 뒤에 감사가 ‘첨사보다는 지방관이 통제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무관 군수를 차출하여 본성의 일을 통제하였으나 그 군수가 죄로 파면이 된 뒤에 과거와 같이 첨사가 주관하였습니다. 어지럽게 수십년간 변화가 무상하였으나 이룩한 바가 없으니 식자들의 한심은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지금 해방(海防) 문제는 전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태안군수(泰安郡守)를 무관 가운데에서 잘 가려서 차출하고 또 안흥방어사를 겸하게 하여 지키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소임이 이미 무겁고 체면이 저절로 남과 다르니 집행해야 할 일이 없을 수 없기에 그 절목(節目)을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 이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³⁷⁾

이 기록은 『비변사등록』, 숙종 1년 10월 6일조,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사목(事目)은 새로운 관청을 개설할 때 제정하는 규칙 또는 시행규칙으로 안흥진이 첨사영에서 방어사영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이 제정되면서 안흥진의 신진(新鎭)을 건설하는 도중에 수축한 구진(舊鎭)을 방어영으로 삼게 된 그간의 사정과 방어사영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다. 이 내용은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방어사영이 된 안흥진의 입지적 조건을 서술하고, 파괴되었으나 이미 축성되어 있는 옛 진성(鎭城)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안흥의 지형이 불쑥 바다 가운데로 40여리나 들어가 있으며 삼남의 배가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37) 『비변사등록』, 숙종 1년 10월 6일조,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

달리 길이 없을 뿐 아니라 뚫단배가 하루면 강도(江都)에 도달할 수 있으니 이른 바 수로의 요충이며 강도의 문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 탄환에 파괴된 성(城)이 있으니 바로 첨사(僉使)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구진(舊鎭)이 입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둘째는 구진(舊鎭)의 서쪽 포구 건너에 작은 섬이 있는데 뱃길이 가깝고 요망(瞭望)하기에 장애가 없다고 하여 계사년(효종 4년)에 조정에서 이저(李紘)를 첨사로 삼아 신진(新鎭)을 이곳에 계획하였으나 많은 관사(官舍)를 일시에 지으려면 물력의 소모가 매우 많다고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만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안흥 신진으로서 부적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은 신진(新鎭)으로 이설(移設)한 지 16년 만에 다시 본진이었던 구진(舊鎭)으로 재이설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이 내용은 1-㉔의 『비변사등록』, 효종 7년 4월 3일조에서 충청도 감사 권우(權塢)가 화정도 안흥진의 여장(女牆)은 3월 27일 정도면 완공될 것이나 공해(公廩) 시설이 절반정도 밖에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셋째는 안흥 신진(新鎭) 경영을 주창한 이후원이 구진(舊鎭)을 수축할 것을 건의하여 어전에서 수축하기로 결정된 내용이며, 넷째는 이에 따라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밝힌 내용이다. 다섯째는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이 완성된 이후의 방어 능력, 안흥 신진(新鎭)에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였던 용수(用水)의 용이함 등을 적시하여 안흥진으로서 적합함을 명시한 것이다. 여섯째가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을 작성하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다. 안흥 구진(舊鎭)을 수축한 후 안흥진을 신진에서 본진(本鎭)으로 재이설하고 첨사직을 수차례에 걸쳐 변환하였으나 마땅하지 않아 결국 태안군수(泰安郡守)를 무관 가운데에서 잘 가려서 차출하고 또 안흥방어사를 겸하게 하여 지키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음을 왕(王)에게 보고하고 윤험을 받고 있다. 이때 안흥 구진(舊鎭)을 수축하고는 산성(山城)을 설치한 것이라 하고 충청도 감사의 결정으로 육군인 중군(中軍)이 성안의 구진(舊鎭)에 들어가 주둔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안흥진성 본진의 축성 의도와는 다르게 군사배치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³⁸⁾

안흥 구진(舊鎭)의 수축이 이루어지게 된 정황과 수축시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상신(相臣) 이후원(李厚源)이 직접 그 사정을 살피고 돌아와 ‘신진(新鎭)은 비록 버릴 수는 없으나 샘이 마르기 쉽고 바람부는 때가 많아 도

³⁸⁾ 『비변사등록』, 현종 9년 9월 3일조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리어 구진(舊鎭)을 수축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결국 구진(舊鎭)을 수축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관사(官舍) 신축의 물력소모에 대한 부담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원이 안흥의 신·구진(鎭)을 살펴보고 돌아와 어전에서 대신들과 논의한 것은 효종 6년 5월 13일이다. 이때 이후원(李厚源)이 양호(兩湖)에서 막 돌아오자 효종이 안흥(安興)·격포(格浦)의 형세와, 설축(設築)하여 방수(防守)하기가 편리한지의 여부를 묻자 이후원이 조목조목 대답하고 이어서 안흥·격포·성계·원산 등의 그림을 바쳤다³⁹⁾고 한 것으로 보아 이때 구진(舊鎭)을 수축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재기년(迂齋紀年)』에 의하면, 이후원은 왕명에 의하여 효종 6년 3월 12일(丁酉)에 출발하여 4월 11(乙丑)일에 전라도 격포에 이르렀으며, 4월 23(丁丑)일 태안 안흥에 도착하여 2일간 머물면서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의 형편을 살펴보고 5월 2(乙酉)일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⁴⁰⁾ 5월 5(戊子)일에는 왕명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안흥 新鎭과 舊鎭의) 길이를 계산하고, 두텁고 얇음을 재고, 높고 낮음을 측량하고, 해자의 길이와 물은 몇 길인가 측량하고, 공사의 기일을 헤아리고, 부역민의 경영을 계산하고, 사용될 비용을 고려하고, 밥을 말려서 만든 식량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록하여 임금께 바쳤다. (5월 13일) 효종을 입대하는 자리에서 안흥에 진을 설치할 방략과 안흥의 형세에 대하여 진술하며 “마땅히 구성(舊城)을 증축하여야 합니다.”⁴¹⁾라고 건의하고 있다. 『효종실록』에는 효종 6년 5월 5일자 기사 전체가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5월 13일자 기사에 효종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안흥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우재기년(迂齋紀年)』에서 이후원이 효종에게 서면으로 복명한 것이 5월 5일이고, 『우재기년(迂齋紀年)』에는 입대한 날짜가 누락되어 있는데, 복명한 내용을 공문화 하여 효종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과 논의한 것이 『효종실록』의 내용과 같이 5월 13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재기년(迂齋紀年)』에 서면으로 복명한 내용에 의하면, 안흥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의 성벽 길이, 체성의 너비, 체성의 높이, 그리고 해자의 길이를 측량하는데 특히 신진(新鎭)의 경우는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연해(沿海)의 깊이가 몇 길인지를 측량한 것 같다. 그리고, 공역

39) 『효종실록』, 효종 6년 5월 병신조

40) 李鼎夏·李種文 共編, 1917, 『우재기년(迂齋紀年)』, 二十八年 乙未, 三月 丁酉條, 四月 乙丑條, 四月 丁丑條, 五月 乙酉條, 五月 戊子條, 古2511-伝62-202, 국립중앙도서관

41) ‘○戊子復 命計丈數 度厚薄 揣高卑 仰溝洫 量事期 計徒庸 慮財用 書餼糧 效致於上 ○入對陳安興設鎭方略備陳安興形勢 以爲宜增築舊城…’(『우재기년(迂齋紀年)』, 二十八年 乙未, 五月 戊子條)

의 소요 기간, 동원할 부역민에 대한 사항, 신진(新鎭)의 축성과 구진(舊鎭)의 수축에 관한 재원, 부역민에게 지급할 식사 대응으로 밥을 말려서 만든 식량의 소요 분량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안흥의 신진(新鎭)을 화정도에 이설하여 축성토록 주창한 이후원이 다시 구진(舊鎭)을 수축할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 다음날인 5월 14일에 참찬관 김익희는 “입대(入對)하였을 때에는 옳다고 하였더라도 나와서는 곧 다르게 의논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로는 무릇 국가의 이해와 득실에 대하여 그 소견에 따라 곧이 아뢰고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이면 힘껏 청하여 시행하고, 백성에게 해롭고 나라에 병되는 것이면 또한 명백히 말하고 시원하게 밝혀서 반드시 빨리 폐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어찌 이미 옳지 않은 줄 알면서 구차하게 면전에서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⁴²⁾하고 이후원의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후원의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 의견이 효종 6년 5월 13일 어전에서 결정됨에 따라 안흥 구진(舊鎭)의 수축이 시행되게 되었다.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 공역은 매우 빠르게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충청병사 유혁연(柳赫然)이 안흥성터를 참작하여 수축 범위를 결정하고, 이지원(李枝遠)으로 안흥첨사(安興僉使)로 삼고 황사성(黃士誠)을 소근첨사(所斤僉使)로 삼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감사 권우(權堦)를 총감독의 책무를 받도록 하여 효종 6년(1655) 8월에 공역을 시작하여 10월에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안흥 구진(舊鎭) 수축 공역은 본도(本道) 즉 충청도 좌영(左營) 속오군 2,200여명을 선발하고 승군(僧軍)으로 돕도록 하여 축조하였다.⁴³⁾ 안흥 구진(舊鎭) 수축 공역에 동원된 축성군을 기존의 도내 각 고을별로 차출한 것과 달리 좌영(左營)⁴⁴⁾의 속오군을 징발한 것은 수축 공역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신진(新鎭) 축성 공역에 이미 도내 고을별로 축성군이 동원⁴⁵⁾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 공역이 8월에 시작되어 10월에 이르기

42) 『효종실록』, 효종 6년 5월 정유조

43) 李鼎夏·李種文 共編, 1917, 『우재기년(迂齋紀年)』, 二十八年 乙未, 五月 戊子條

44) 『增補文獻備考』兵考 州鎭兵條에 의하면, 조선후기 충청도의 군사편제는 병영 아래 전영(홍주)·좌영(해미)·중영(청주)·우영(공주)·후영(충주) 등 5진영이 편제되어 있었으며, 각 진영 아래에는 여러 속읍들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좌영에 소속된 속읍에는 대흥, 온양, 면천, 서산, 태안, 결성, 예산, 평택, 아산, 신창, 덕산, 당진 등 12개 군현이 편제되어 있었다.

45) 효종 6년 4월 24일 기사 내용에 안흥진을 화정도로 옮긴 후, 비로소 축성하는 과정에서 축성군의 징발과 일의 독촉으로 도내가 소요하고 고통을 원망하는 백성이 많았다고 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까지 3개월 만에 완공되었다는 기사는 『비변사등록』, 숙종 1년 10월 6일조에 실린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에 수록되어 내용이다. 즉 효종대에 있었던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 공역 사실이 숙종대에 언급되었다는 것은 수축 공역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며 수축 공역 기일이 이미 적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효종 6년에는 김석견의 건의로 화정도에 안흥진성을 새로 축조하고 있던 시기인데, 같은 해 8월부터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 공사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화정도의 신축 안흥진성이 충청도 감사 권우(權堦)의 보고대로 효종 7년(1656) 3월 27일에 체성의 여장까지 완축되었다고 하여도 이보다 효종 6년 10월에 완료된 구진(舊鎭) 안흥진성의 수축이 먼저 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구진(舊鎭) 안흥진성 수축의 공사감독을 맡은 안흥첨사 이지원과 소근첨사 황사성은 효종 6년 7월 15일 같은 날에 제수⁴⁶⁾되었다가 이지원은 효종 7년(1656) 12월 7일 강릉부사(江陵府使)⁴⁷⁾로, 황사성은 현종 즉위년(1659) 10월 21일 高原郡守⁴⁸⁾가 되어 부임하게 되어 안흥 구진(舊鎭) 수축 공역이 효종 7년에 완공되었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구진(舊鎭)의 수축범위를 결정한 병사 유희연이 충청병사로 제수된 것이 효종 6년 4월 29일이며⁴⁹⁾, 효종 7년 1월 15일에 통제사(統制使) 유희연(柳赫然)이 제수된지 70일이 되었는데 부임하지 않은 죄를 논의하고 있어⁵⁰⁾ 대체로 효종 6년 11월 5일쯤에 통제사(統制使)로 제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임 충청병사(忠淸兵使) 이문위(李文偉)도 제수된지 65일이 되었으나 순차적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총감독관인 권우(權堦)의 충청도 감사 재임시기가 효종 6년 6월 24일⁵¹⁾부터 효종 7년 8월 14일⁵²⁾까지로 재임시기와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시기(효종 6년 8월~10월)가 겹치는 것은 효종 6년이기 때문이다. 권우는 효종 7년 8월 14일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제수된 이후 효종 7년 8월 26일에는 좌승지(左

46) 『승정원일기』136, 효종 6년 7월 15일 정유조, ‘…黃士誠爲所斤僉使, … 李枝遠爲安興僉使…’

47) 『승정원일기』143, 효종 7년 12월 7일 경진조, ‘…李枝茂爲江陵府使, …’

48) 『승정원일기』158, 현종 즉위년 10월 21일 무신조, ‘…黃士誠爲高原郡守, …’

49) 『승정원일기』135, 효종 6년 4월 29일 계미조, ‘忠淸兵使柳赫然…謝恩後, 仍爲下直’

50) 『승정원일기』138, 효종 7년 1월 15일 갑오조, ‘…而統制使柳赫然, 除拜已七十日, 忠淸兵使李文偉, 慶尙左水使成鈞, 除拜已六十五日, …’

51) 『승정원일기』135, 효종 6년 6월 24일 정축조, ‘…權堦爲忠淸監司…’

52) 『승정원일기』141, 효종 7년 8월 14일 기축조, ‘…權堦爲工曹參議…’

承旨)로 제수되었다가 효종 7년 9월 10일에는 우승지(右承旨)로 옮기고, 효종 7년 11월 9일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제수되었다가 효종 8년 3월 29일에는 권우(權堧)를 대사간으로 삼아 이조참관을 특별히 제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태원은 발표문⁵³⁾에서 <…여장이 완공된 1656년 3월 말 무렵 성벽도 완성되었고, 1656년 초봄부터 시작하여 절반 정도 추진된 공해 공사는 추수 후에 재개되어 1656년 10월에 완공되었다.>고 하여, 효종 7년 3월의 안흥 신진(新鎭) 축성 사실에 대한 충청도 감사 권우(權堧)의 보고내용과 효종 6년 8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완공한 안흥 구진(舊鎭) 수축공역 사실을 혼합하여,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공역이 효종 7년(1656) 3월 이전⁵⁴⁾부터 시작하여 효종 7년 10월에 완공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안흥방어사사무(安興防禦使事目)>에 수록되어 있는 수축공역 기간 3개월을 아무 근거없이 배척하고 1년여 기간으로 임의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를 낳게 된 것은 앞에서 거듭 서술한 바와 같이 효종 4년에 화정도로 이설하여 계속 존치되고 있었던 안흥진을 이설 전의 구진(舊鎭)과 혼동하고 있는 데서 야기된 것이다.

한편, 영돈녕부사 김육(金堧)이 효종 7년 2월 2일과 2월 10일에 충청 감사 재임 시에 본 안흥의 형세가 실로 성을 쌓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며 축성을 중지할 것을 간청한 곳은 이미 성곽이 축조되어 있었으며 수축까지 완공된 안흥 구진(舊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안흥 신진(新鎭)의 형세를 들어 축성을 반대하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특히 효종 6년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 공역이 이루어질 때에는 침목을 지키고 있었던 김육이 수축 공역이 완공된 이후에 안흥 신진(新鎭)의 축성 중단을 계속하여 요청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또한, 효종 7년 3월 26일 효종을 인견한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바쁜 농사철을 들어 안흥진성 축성을 중지하였다가 가을걷이 이후에 재개할 것을 건의한 것도 안흥 신진(新鎭)의 축성 공역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효종 7년 9월 15일에 김육이 다시 안흥진 축성공사의 혁파를 거론하

53) 서태원, 2020, 『조선시대 서해안 방어체계와 안흥진의 설치』,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34~35쪽. 문광균은 “안흥산성 수축공사는 1656년(효종 7) 10월에 마무리되었다.”(문광균, 2020, 『조선 후기 태안 안흥첨사의 재임실태와 특징』,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74쪽)고 하고, 문경호는 “…1655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나 1656년 농번기에 중단되었다가 8월에 재개되어 10월에 완성한 것으로 이해된다.”(문경호, 2020, 『태안 안흥진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149~150쪽)고 하여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54) 서태원은 구진(舊鎭) 수축공역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벽 축조 이후에 여장이 축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공역이 전년도인 효종 6년부터 시행되어 효종 7년 10월에 완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면서, 이미 쌓은 진은 변장(邊將)에게 영을 내려 지키게만 하시고 더 쌓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 것은 안흥 신진(新鎭)의 축성 공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화정도의 신진(新鎭)이 안흥성 구진(舊鎭)의 서쪽 포구 건너 작은 섬에 계획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정도는 지금의 신진도 입을 파악할 수 있다. 신진도는 지명의 명칭 유래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육지와와의 왕래를 위해 새로 나무를 개설하여 ‘새나무’라고 칭하였고, 이것을 한자로 신진(新津)이라 표기하였다.’고 수록되어 있으나, 어쩌면 안흥성의 새 진(鎭)이 있었다고 하여 ‘신진도(新鎭島)’라고 하였던 것이 변형된 지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 안흥 구진(舊鎭)으로 재이설(再移設)

안흥 구진(舊鎭)의 수축과 안흥 신진(新鎭)의 축성이 모두 완료되자 양진(兩鎭)의 토병(土兵)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진(新鎭)이 더욱 원망하고 있다고 하여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현종 10년에 이르러서야 일단락을 맺게 된다.

②-㉔충청감사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안흥(安興)은 첨사(僉使)의 본진(本鎭)이었는데 산성(山城)을 설치한 뒤에 중군(中軍)은 성안의 옛 진에 들어가 있고 첨사는 건너편 좁은 땅으로 진을 옮기니 양진(兩鎭)의 토병(土兵)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진(新鎭)이 더욱 원망하고 있으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원산도(元山島)는 사실 해안 방어의 요해처(要害處)로 지형도 광활하고 토질도 비옥하여 진부터 여러 논의(論議)가 모두 진(鎭)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곳이니 지금 만일 안흥진을 원산도로 옮긴다면 일이 매우 편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원산은 목장(牧場)이 있으니 목장의 말들을 대산목장(大山牧場)으로 옮겨야만 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가 친히 원산에 가서 형세를 살펴본 뒤에 아뢰어 변통함이 좋겠다.” 하였다.⁵⁵⁾

③김좌명이 아뢰기를, “안흥(安興)의 옛 진은 형세가 매우 좋았는데, 첨사가 새 진으로 이주하여, 불편한 일이 많고 토병들도 원망하며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안흥의 첨사는 옛 진으로 옮기고 별장은 혁파하며, 조적(耀耀)하는 일은 태안 군수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재가하였다. 김좌명이 또 아뢰기를, “원산도(元山島) 목장의 말을 대산목(大山

55) 『비변사등록』, 현종 9년 9월 3일조

串)에 옮겨 두고 충청 수군 우후를 원산에 진주하게 하여 풍화(風和)한 철의 변에 대비할 바탕으로 삼고, 또 조선(漕船)이 올라올 때 점검하여 올려 보내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⁵⁶⁾

㉔예조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안흥의 옛 진(鎭)은 그 형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첨사(僉使)를 새 진으로 이주시킨 뒤에는 불편한 일이 많고 토병(土兵)들도 원망하고 괴롭게 여긴다 합니다.” 하였고,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안흥 첨사를 옛 진으로 다시 옮기고 별장(別將)은 혁파시킬 것이며, 군량의 출납에 관한 일은 태안군수(泰安郡守)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⁵⁷⁾

㉕㉔에서 현종 9년 9월 3일 충청감사 민유중(閔維重)이 안흥 신진(新鎭)과 구진(舊鎭)의 완축 후에 양진(兩鎭) 토병(土兵)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신진(新鎭)의 원망이 더 심하여 신진(新鎭)과 구진(舊鎭) 간의 갈등이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해소할 목적이라는 것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안흥진을 원산도(元山島)로 옮길 것을 제의하고 있다. 민유중이 여기에서 안흥(安興)은 첨사(僉使)의 본진(本鎭)이었던 구진(舊鎭)을 수축하고는 산성(山城)을 설치한 것이라 칭하고 육군인 중군(中軍)이 성안의 구진(舊鎭)에 들어가 있었고 첨사는 건너편 좁은 땅 신진(新鎭)으로 진을 옮긴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㉕㉔와 ㉕㉔는 같은 내용으로 화정도의 안흥 신진을 혁파하고 안흥 구진으로 다시 이설하는 내용이다. 현종 10년 2월 4일 예조판서 김좌명이 ‘안흥의 구진(舊鎭)이 형세가 매우 좋았는데, 신진(新鎭)으로 이주한 이후 불편한 일이 많고, 토병(土兵)들도 원망하며 괴롭게 여기고 있다’고 하자, 좌의정 허적이 안흥첨사진을 구진(舊鎭)으로 옮기고 별장(別將)도 혁파하여 신진(新鎭)에서는 수군을 모두 철수하는 것으로 건의하자 현종이 재가하고 있다. 그리고, 김좌명의 건의대로 원산도(元山島) 목장의 말을 대산곶(大山串)에 옮기고 충청 수군 우후가 원산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종 10년에 대신들의 논의 이후 바로 안흥 신진(新鎭)에서 구진(舊鎭)으로 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효종 6년 8월에서 10월까지 안흥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효종 4년(1653)에 안흥진을 화정도로 옮기고 효종 6년에 축성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축성 과정에서 도민들의 고통과 원망을 수반하였고, 효종 7

56) 『현종실록』 및 『현종개수실록』, 현종 10년 2월 병인조

57) 『비변사등록』, 현종 10년 2월 4일조

년에는 신진(新鎭) 안흥진성이 완축되었지만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진을 두게 된 것에 대한 불편함이 더해져서 화정도 신진(新鎭)으로 이설(移設)한 지 16년 만인 현종 10년(1669)에 안흥 구진(舊鎭)으로 다시 이설하게 되었다.⁵⁸⁾

4. 안흥진성의 초축시기에 대한 검토

안흥 구진은 현재의 안흥진성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반영된 『여지도서』태안 진보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안흥진(安興鎭)은 (태안)군 근서면 40리에 있다. 침사 무관 종3품 진(鎭)으로, 방졸(防卒) 87명, 거북선(龜船) 1척, 방선(防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3척 등이 남문 밖 선창에 있다. 대장(代將) 2인, 지고관(知鼓官) 1인, 기패관(旗牌官) 10인, 교사(敎師) 2인, 포도관(捕盜官) 4인, 훈도(訓導) 2인, 대포교사(大砲敎師) 2인, 군졸(軍卒) 3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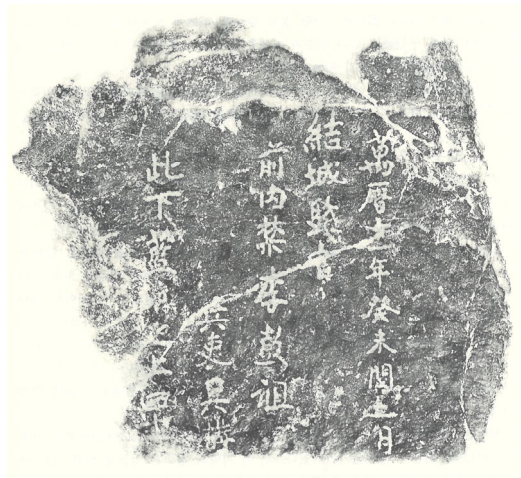


그림 1. 안흥진성 각자성석 탁본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安興城』, 207쪽 所收)

안흥진(安興鎭)은 현재의 위치에 해당하는 태안군 근서면⁵⁹⁾ 40리에 있으며, 종3품 침사진으로 수군직인 대장(代將) 2인을 비롯한 군역과 거북선(龜船) 1척 등 군선의 규모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안흥진성(安興鎭城)의 축성과 관련해서 다음 각자성석(刻字城石)이 주목된다. 이 각자성석(刻字城石)은 1993년 공주대학

⁵⁸⁾ 안흥진을 구진(舊鎭)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 강도(江都)의 요충으로 중요시 하고 있다. (『현종실록』, 현종 10년 2월 병자조)

⁵⁹⁾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근서면(近西面) 18개리와 안흥면(安興面) 12개리를 병합하여 근흥면(近興面)이라 하고 가의도, 도황, 두야, 마금, 수릉, 신진도, 안기, 용신, 정죽의 9개리로 개편해서 서산군에 편입되었다가, (『한국지명총람』충남편 하) 1989년 서산읍이 시로 승격되어 독립되면서 태안군으로 분리되었다. 안흥진성은 현재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해당한다.

교 박물관이 안흥진성에 대한 학술조사 시 36구간에서 확인하여 보고한 것으로 안흥진성 축성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탁본 상으로 살펴본 명문은 「萬曆十一年癸未閏二⁶⁰⁾月 結城縣官 前內禁李彭祖 兵吏吳□ 此下藍浦之上四十一(尺?)」이라 판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 내용은 萬曆 11년(1583)인 선조 16년 윤2월에 結城 관리이며 전 내금위였던 이팽조(李彭祖)가 병



사진 1. 안흥진성 북벽 단면

리(兵吏) 오□와 함께 일정 축성구간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파악된다.⁶¹⁾ 그리고 「此下藍浦之上四十一(尺?)」은 ‘이 아래 남포의 위 41척은...’이라 하여, 축성구간 41척을 남포에 이어 어느 지방에서 차출된 축성군이 담당한다는 것을 각석하였을 것인데 결실이 되어서 더 이상 판독이 어렵다.

그러나, 안흥진성의 축조가 선조 16년(1583)에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금석문 자료가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축성시기를 알려주는 ‘萬曆十一年癸未閏二月’銘 각자성석이 초축시기 뿐만 아니라 수, 개축시기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발굴조사 시 절개조사한 북벽 체성 단면에서 초축이후 수·개축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각자성석은 초축시기를 밝혀주는 고고학 자료를 뒷받침하는 금석문 자료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선조 28년(1595) 6월에는 왜란을 겪으면서 군량 확보와 관련하여 안흥만호(安興萬戶) 허수(許售)가 지령산(智靈山) 근처에서 개간한 사실을 언급⁶²⁾하는 과정에서 만호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조 16년에 안흥진성을 축조하고 안흥만호(安興萬戶)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왜군이 전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듭 안흥량(安興梁)에 배를 모아 일진(一陣)을 설치하고 적을 방어하는 계획이 오늘날의

60) 보고서에서는 윤3월로 판독하였으나 萬曆 11년인 1583년에는 윤2월이 있는 해이므로 정정한다.

61)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安興城』, 205쪽.

62) 『선조실록』, 선조 28년 6월 6일 정미조

급선무라고 하여 왕의 재가를 받고 있어⁶³⁾ 안흥량이 해방(海防)의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광해 7년 윤8월에는 안흥침사(安興僉使) 이은종(李殷宗)이 등장하고 있어 안흥만호가 침사로 승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광해 7년에 안흥침사가 배치되었던 사실은 이미 안흥진에 축성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볼 때, 안흥진성은 선조 16년(1583)에 축성되어 임란 시에는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요충지에 해당하였고, 청나라의 침입 후에는 보장처인 강화도(江華島)의 배후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일시 화정도 신진(新鎭)으로 이설되었지만 이설된지 16년 만에 안흥 구진(舊鎭)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고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장처인 강화도의 배후 진성으로서의 역할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다.

Ⅲ. 안흥진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안흥진성의 둘레는 1,773m⁶⁴⁾로 이 진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1차례의 지표조사와 3차례의 발(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표조사는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발(시)굴조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1. 지표조사

안흥진성 대한 학술조사⁶⁵⁾는 1993년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안흥진성에 대한 많은 자료가 확보되었다. 조사단은 안흥진성 체성을 20m 단위로 구획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㉔ 안흥진성은 표고 80m내외의 구릉성 산봉우리 4개소를 에워싸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구릉과 구릉사이의 능선 상에 성문을 개설하였고, 동문지 남편과 남문지 동편에는 시계(視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기 용도(甬道)를 시설하였다.

㉕ 성벽은 여장까지 잔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군진성 중에서는 가장 잔존

63) 『선조실록』, 선조 30년 7월 29일 무오조, 선조 30년 8월 15일 계유조

6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0, 『태안 안흥성(3차) 시굴조사 개략보고서』, 12쪽.

65)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安興城』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체성의 외벽 축조상태는 기초부에 100cm 정도 크기의 대형석재로 쌓고, 그 상부에는 40cm 정도 크기, 그리고 최상층부에는 10cm 내외의 납작한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그 상부에는 여장이 축조되어 있다.



사진 2. 남벽 여장상태
(『태안 안흥진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2014) 전제)

㉔ 여장은 미석이 없이 체성 외벽 상단에서 10cm 정도 들어서 축조하였으며, 여장의 규모는 한 타의 길이는 2.6m, 2.7m, 3.8m 등 일정하지 않으며, 여장 높이 1m 내외, 너비 70cm 정도이다. 타구의 너비는 15cm, 한 타 마다 총안 1개소씩을 시설하였는데 모두 근총안으로 총안의 크기는 가로 20~25cm, 세로 35~60cm의 규모로 60°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여장 상부에는 전돌을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여장에 사용한 전편(塼片)은 성벽 전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다.

㉕ 체성 면석에 새겨진 각자성석의 확인이다. 안흥진성의 초축시기를 기념할 수 있는 「萬曆十一年癸未閏二月」銘 각자성석을 비롯하여, 「石手 邊手 金愛從 淸州」, 「以下恩津」, 「以上恩津」, 「邊手 石手 金加之 德山」, 「瑞山上六十六尺」 등의 각자성석이 확인된 것이다. 확인된 지명



사진 3. '石手 邊手 金愛從 淸州'명 각자성석

이 청주, 은진, 덕산, 서산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충청도 전역에서 축성군이 동원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以下恩津」과 「以上恩津」과의 이격거리가 26m로 나타나고 있어 은진현에서 동원된 역군의 축성구간이 26m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瑞山上六十六尺」은 「瑞山 以上六十六尺」의 '以'字가 결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포백척(준수)의 기준치인 46.73cm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30.84m가 되어 서산군이 담당한 축성구간으로 추정되며, '恩津'과 비교할 때 각 지역별로 축성구간을 각자성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청주와 덕산은 석수(石手)의 우두머리인 편수(邊首)를 편수(邊手)로 표현하여 김애종(金愛從)과 김가지(金加之)가 확인되고 있다.



사진 4. 안흥진성 동문지(성내에서)

㉓ 성문은 동, 서, 남, 북 4면에 개설하였으며, 동문은 홍예문이며, 그 외는 모두 평거식 성문으로 그 상부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문루가 건축되어 있었음이 남문지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문지 전 지점에서 전(塼)과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어 성문에는 모두 문루가 건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동문지에서 수습된 기와편 중에서는 ‘崇禎紀元後三辛卯’銘 명문와가 있어 영조 47년에 동문이 보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발(시)굴조사

안흥진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3차 조사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1) 1차 발굴조사

안흥성 북벽에 대한 1차 발굴조사⁶⁶⁾는 2006년 4월 17일~2006년 5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지역은 태국사에서 북문으로 연결되는 성벽구간 중 붕괴가 심한 3개 지점에 대한 절개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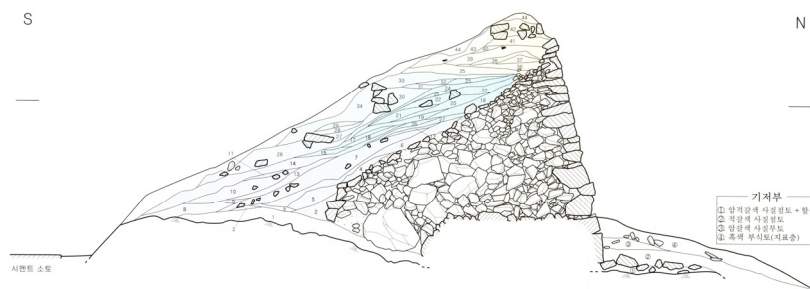


그림 2. 안흥진성 북벽 2지점 단면도(『安興鎭城』(2008)에서 전재)

6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안흥진성-성벽절개조사보고서-』

조사구역 내 3개 지점 중 2지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저부는 생토 층까지 굴착한 후 암적갈색 사질점토와 길이 20cm~30cm 내외의 할석을 함께 다진 후 기저부에서 1m 높이까지는 60cm~120cm×50cm~60cm 정도의 석재를 사용하여 3~4단 축성하였으며, 그 상부에 40cm~80cm×30cm 내외의 성석을 3단 정도 쌓아 올렸으며, 다시 그 상부에 30cm~40cm×10cm 내외의 작고 납작한 성석을 쌓아서 체성을 이루고 있다. 적심부는 내벽 기저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사면을 이루며 점점 좁아지는 단면 직각삼각형과 같은 형태로 축조되었는데 순수한 할석만을 사용하였다.

체성 축조에 사용된 석재는 흑회색과 백색이 섞인 변성화강암을 사용하였으며 해수와 암반이 접하는 해안가에서 축성재료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심부의 규모는 최대너비 450cm, 높이 350cm 정도이다. 이 적심석과 동시 공정으로 내탁부가 조성되었으며 적갈색, 암갈색, 황갈색 사질점토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사립입자와 생토부스러기가 다수 포함되어 다소 거친 편으로 2m 정도의 두께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게 다졌으며, 상부는 수평으로 다지고 여장의 기초부로 삼고 있다. 이 체성 단면에서 초축 이후에 수, 개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2차 발굴조사

안흥진성에 대한 2차 발굴조사⁶⁷⁾는 2012년 4월 24일~2012년 7월 22일간 안흥진성 서문지 일대의 성곽 잔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서문지 남측 잔존구간의 체성 기저부는 기반토 상면에 지대석을 놓고 바로 기단석과 면석을 축조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대형 석재를 사용하고, 상부는 점차 크기가 작은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사진 5. 서문지 남측구간 체성 단면
(『태안 안흥진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2014), 55쪽 전제)

67)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4, 『태안 안흥진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체성의 적심부는 적심부 내벽에서 사면으로 좁혀져 올라가는 적심부 내부 및 상부에 층단식으로 체감하여 축조하였음이 확인된다. 외벽에서 내벽까지의 기저부 너비는 4.4m, 체감하여 올라간 적심부 너비는 2.4m를 나타내며, 내탁부의 잔존 너비를 포함한 체성의 너비는 7.5m 정도이다. 적심석 내벽을 소형 석재로 사면을 이루도록 축조한 북벽과 달리 적심부 내벽이 사면으로 체감하여 올라가는 단면과 층단식으로 체감하여 올라가는 2중의 중층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사면으로 체감된 적심부는 초축시기의 적심부이며, 상부에 층단식으로 체감하여 축조한 적심부는 수축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체성의 잔존 높이는 1.7~2.3m로 층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강회덩어리를 토대로 추정된 체성 높이는 4.2m에 달한다.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편(搏片)이 수습되었는데, 여장에 사용되었던 용도로 파악된다.

3) 3차 시굴조사

3차 발(시)굴조사⁶⁸⁾는 태안 안흥성 내 추정 건물지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 목적은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정비 및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지점의 762㎡범위와 2지점 3,838㎡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굴조사는 2019년 12월 13일~2019년 12월 30일 까지로 실조사일수는 5일이다.

1지점은 북쪽 정상부 평탄지에 해당되며, 조사 결과 정면 4칸, 측면 1칸에 전퇴(前退)와 후퇴(後退)가 있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2020년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제승루의 잔존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승루는 정조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흥진성 고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표현



사진 6. 안흥진성 제승루 유구 노출상태



그림 3. 안흥진 고지도상의 제승루

68)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0, 『태안 안흥성(3차) 시굴조사 개략보고서』

되어 있는 ‘ㄷ’자 형태의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1칸에 전퇴와 후퇴가 있는 구조에 양쪽 익랑을 두어 1칸씩 배치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2지점 남쪽 평탄지는 관아시설(행영)의 중심 건물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으로 조사 결과 동서 약 20m, 남북 약 10m 규모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관아시설로 판단된다. 2지점 상단부 평탄지에서는 조사결과 각 평탄지에서 적심시설과 함께 적석시설, 전, 석렬 등이 확인되었으며, 그 사이 사면부에는 최소 2곳 이상의 석축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지점 하단부 평탄지에서는 조사결과 트렌치 14·15에서는 원형의 적심시설과 함께 조선시대 원형 주거지, 수혈유구,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17에서는 동서방향의 석렬 2곳과 함께 배수로 시설,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2020년도 발굴조사에서 건물지의 규모와 성격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안흥진성의 공해시설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타 진성과의 비교, 검토

수군진성에 대한 축성이 대부분 중종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현 안흥진성은 금석문에 의하여 선조대에 축성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축성시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도 관내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서천포진성과 충청수영성의 체성 축조기법과 비교하여 초축시기와 수축시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서천포진성

서천포진성은 중종 6년에 축성이 시작되었으나 대간의 요청으로 중지되었다가 중종 9년에 完築되었다. 이 서천포진성 남벽에 대해서는 1995년에 국립부여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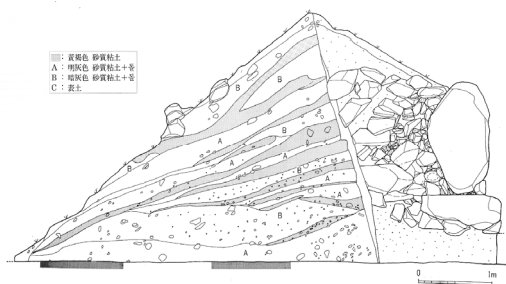


그림 4. 서천포진성 남벽 단면도
(『서천 장암진성』(1997)에서 전재)

서천포진성 남벽에 대한 조사결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벽은 지대석 받침 위에 지대석을 놓고 그 상부에 지대석 끝단에서 20cm정도 물려서 자연석피를 기단석으로 하여 면을 맞춰서 세워놓았는데 그 상부 면석은 붕괴된 상

⁶⁹⁾ 국립부여박물관, 1997, 『서천 장암진성』

태이다. 기단석 내부는 1~2m 정도의 두께로 적심하였는데 적심부 내벽이 사선으로 좁혀져 체감하여 올라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공정상으로 보면 외벽 및 적심부와 토축의 내탁부가 동시공정으로 축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내탁부는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다져서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등성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천포진성 서벽 및 북벽에 대한 시굴조사는 1998년 금강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하여 시행⁷⁰⁾되었으며, 발굴조사는 1998년 전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⁷¹⁾

발굴조사 약보고서에 의하면, 서천포진성 북벽은 기반토 또는 기반암까지 굴착한 후 기반토에는 흙갈색의 점토다짐층 위에 지대석을 놓거나 풍화암반토 내지는 기반암 위에 소형의 할석으로 받치고 지대석을 놓았다. 북벽 일부를 절개하여 축조양상을 파악한 결과, 부정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지대석을 놓고 지대석 끝단에서 물려서 기단석과 상부 면석을 네모막돌층지어쌓기 기법으로 축조하였다. 적심부 기저부 너비는 140cm 정도이며 적심부 내벽은 사면으로 체감하여 축조하고 동시공정으로 유사편축기법으로 경사내탁 하였다.

(2) 충청수영성



사진 7. 충청수영성 동문지부근 동벽 체성 단면

동문지 주변 성벽조사⁷²⁾는 2010년과 2011년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절개조사 결과 기저부는 능선 성부 및 경사면을 풍화암반생토면이 노출되도록 굴착하고 삭평한 후 지대석을 안치하였다. 지대석 끝단에서 15cm 정도 물려서 부정형 대형 석재를 사용하여 기단석과 면석을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으며, 적심

부 기저부 너비는 2.5m, 잔존 높이 2.8m로 적심부 내벽이 사선으로 체감하여 적심부 단면은 직각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다. 적심부 내벽에 연접하여 동시공정

⁷⁰⁾ 금강문화유산연구원, 1998,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장암진성지역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⁷¹⁾ 전남문화재연구원, 2019, 『서천 장항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사업(장암진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⁷²⁾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2, 『보령 충청수영성 학술발굴조사보고서』, 45~49쪽.

으로 생토부스러기 및 작은 할석이 포함된 점토를 다져서 내탁부를 구축하였다.

충청수영성 서남벽에 대한 발굴조사는 동방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2017년 11월 08일~2017년 11월 25일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서남벽의 기저부는 성토 다짐한 후 사직선기단으로 조성하고 지대석을 안치했으며, 기단석을 약간 물려서 놓고 그 상부에 면석을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여 조사 당시 3단 정도가 잔존하고 있었다. 내탁부는 2~3단의 계단상으로 체감하여 축조하였으며 동시공정으로 적심부와 연결하여 토사를 성토다짐한 경사내탁부가 확인되었다. 체성은 한 두차례 붕괴되어 수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성의 잔존 너비는 기저부 성토다짐층 8m(북서쪽)~8.5m(남동쪽), 지대석에서 경사내탁부까지 6.8m(북서쪽)~7.8m(남동쪽), 지대석에서 적심부 내벽 기저부까지 4.3m(남동쪽)~4.7m(북서쪽)이다. 체성의 잔존 외벽 높이는 지대석을 기준으로 남동쪽 3.5m, 북서쪽 2.9m이다.

(3) 비교·검토

충청도 관내 수군진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서천포진성과 충청수영성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초축시기의 체성은 적심부 내벽이 사선으로 체감하여 좁혀지며 토사의 경사내탁이 동시공정으로 이루어졌음이 안전화 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라우수영 성벽조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진 구간의 체성 외벽에서는 지대석을 사용하지 않거나 면석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적심부 내벽에서는 2~3단의 계단상을 이루며 체감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안흥성 서문지부근 체성조사에서 사면으로 체감된 적심부는 초축시기의 적심부이며, 상부에 층단식으로 체감하여 축조한 적심부가 부가된 것은 수축과정에서 나타난 축조기법이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수군진성 성벽축조에서 읍성과 비교되는 것은 읍성은 도성 축조기법에 의하여 축조되었다가 세종 20년에 시행된 축성신도에 의한 축조기법이 적용되었다



사진 8. 한양도성 동벽 체성 단면상태



사진 9. 웅천읍성 내벽(축성신도 축조규식)

가 다시 도성 축조기법에 준한 규식에 따라 축조되었음에 반하여 수군진성은 해상방어의 기본 원칙이 선상수어(船上守禦)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기와 육물(陸物)을 저장할 작은 규모의 석보(石堡)를 축조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결과라고 하겠다.



사진 10. 밀양읍성 체성 단면상태

더욱이 성종 10년에 축조된 밀양읍성의 경우 체성 적심부 내벽이 사선으로 좁혀지며 체감되고 있어 성종대에 처음 축조되기 시작한 수군진성 축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성종 20년 2월 4일자 기사내용이 주목된다.

축성 도체찰사(築城都體察使)가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 여러 포(浦)의 쌓은 성(城)이 고저가 정한 제도가 없으므로 대체(大體)에 적당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여러 포와 여러 고을의 성은 포백척(布帛尺)을 써서 15척을 표준으로 삼고, 성을 쌓은 뒤에 5년이 차지 아니해서 무너지는 것은 감축 관리(監築官吏)를 파출(罷黜)하는 것이 이미 성법(成法)이 있으나 무너진 곳이 많고 적음을 물론하고 파출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5년 안에 길이 15척 이상이 무너진 것은 사유(赦宥) 전을 가리지 말고 파출하며, 10척 이하는 율(律)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⁷³⁾

성종 20년에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한 읍성(邑城)과 포진성(浦鎭城)의 축성규칙과 벌칙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성종 10년에 축조된 밀양읍성 체성 축조기법은 수군진성 축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당시 수군진성의 체성 적심부 내벽이 사선으로 체감하여 단면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축성규칙에 따른 보편적인 현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73) 『성종실록』, 성종 20년 2월 임진조

IV. 맺음말

안흥진성은 금석문 자료에 의하여 선조 16년(1583)에 축성되어 임란 시에는 서해상으로 진출하여 북상을 시도하는 왜 수군을 저지하는 요충지에 해당하였고, 청나라의 침입 후에는 보장처인 강도(江都)의 배후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효종 4년 화정도로 이설되어 효종 6년에 축성하기 시작하여 효종 7년에 성벽은 여장까지 완축되었지만 이설된지 16년 만인 현종 10년에 다시 현 안흥진성으로 옮기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효종 4년(1653) 화정도로 이설된 안흥진은 현종 10년(1669) 다시 현 안흥진성으로 이설할 때까지 화정도에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육(金堉)이 효종 7년(1656) 충청 감사 재임 시에 본 안흥의 형세가 실로 성을 쌓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며 계속하여 안흥의 축성을 중지할 것을 주장한 것은 바로 화정도의 안흥진 축성공역 중단이었으며, 효종 7년 3월 26일 심지원(沈之源)이 바쁜 농사철을 들어 안흥진성 축성을 중지하였다가 가을걷이 이후에 재개할 것을 건의한 것도 안흥 신진(新鎭)의 축성 공역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화정도의 안흥 신진(新鎭)에서 구진(舊鎭)인 현 안흥진성으로 곧바로 이설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신진(新鎭)의 축성 도중인 효종 6년 8월에서 10월까지 안흥 본진이었던 구진(舊鎭)에 대한 수축공역이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비변사등록』, <안흥방어사사목(安興防禦使事目)>에서 구진(舊鎭)의 수축 년도가 적시되지 않아 혼동을 주고 있지만 총감독관인 충청도 감사 권우(權塢)의 재임시기를 적용하여 대비하면 효종 6년이 틀림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초축시기가 각자성석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화정도로 이설되었다가 다시 본진인 안흥진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조선왕조실록』 및 『비변사등록』을 비롯한 문헌자료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안흥진성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다고 하겠다. 안흥진의 신진(新鎭)으로 『대동지지』에 수록된 화정도(花亭島)는 『비변사등록』에 ‘안흥진 구진(舊鎭)의 서쪽 포구 건너에 작은 섬에 신진(新鎭)을 축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한국지명총람』에도 누락되어 있는 화정도(花亭島)가 바로 신진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 나루 ‘진(津)’자를 쓰는 현재의 지명 신진도(新津島)는 안흥성의 새 진(鎭)이 있었다고 하여 ‘신진도(新鎭島)’라고 하였던 것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흥진성은 둘레가 1,773m로 고로봉 형태의 표고 80m내외의 구릉성 산봉우리 4개소를 에워싸 성벽을 축조하였으므로 성 내부가 외부에서 관측되지 않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충지에 용도(甬道)를 시설하였는데, 동문지 남측에 축조한 용도의 규모는 길이 68m, 너비 10~15m에 달하고 있다.

안흥진성의 성벽은 체성 상부의 여장까지 잔존하고 있어 축조 당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군진성으로서는 가장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체성의 각자성석은 축성군의 동원지역과 공정상의 축성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벽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체성의 축성기법은 기저부를 암반까지 굴착하거나 기반토를 정지하고 지대석을 안치하였으며, 그 상부에 기단석을 놓고 면석을 축조하였다. 면석에 사용한 석재의 크기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있으며, 최상부에서는 크기가 작고 납작한 석재로 축조하여 여장 기초부를 이루고 있다. 적심부는 순수한 할석만을 사용하여 내벽 기저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사면으로 점점 좁아지는 단면 직각삼각형과 같은 형태로 축조되었는데, 적심부와 동시 공정으로 내탁부가 조성되었으며 2m 정도의 두께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게 다졌으며, 상부는 수평으로 다지고 여장의 기초부로 삼고 있다. 발굴과정에서 드러난 체성 단면에서는 초축 이후 수개축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2년 안흥진성 서문지 일대의 성곽에 대한 2차조사 시에는 사직선으로 체감되어 축조된 적심부 상부에 계단상으로 체감된 적심부가 보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보충시설이 효종 6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축한 사실을 기록한 『비변사등록』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안흥진성의 여장은 석재와 함께 다양한 전(塼)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구름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한 타당 총안 1개소씩 시설하였는데, 모두 근총안을 시설하여 안흥진성만의 특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⁷⁴⁾

성문은 동, 서, 남, 북 4면에 모두 개설하였으며, 동문의 홍예문을 제외하면 모두 평거식 성문으로 4개소의 성문 모두 문루가 건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안흥진성 문루 명칭은 동문이 수성루(守城樓), 남문은 복파루(伏波樓), 서문은 수홍루(垂虹樓), 북문은 감성루(坎城樓)⁷⁵⁾로 정비하면 옛 문루명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4) 당시 좌의정이었던 체제공은 어사로 안흥진성에 갔을 때를 상기하여, “어사로 갔을 때 두루 보았습니다. 큰 바다를 앞에 두고 절벽 위에 성루가 있어 마치 제비둥지와 같으므로 방어의 요새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정조실록』권30, 정조 14년 4월 정사조)라고 하고 있어, 여장에 근총안을 시설하게 된 지형적인 여건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75) 李敏寧, 1927, 『瑞山郡誌』, 衙廡, 安興鎮條

동문의 홍예문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단지 북쪽 측벽이 훼손된 상태로 있어 보수가 시급하나 군사시설 내에 입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방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안흥진성의 역할은 서해로 거슬러 올라오는 적을 물리칠 해상방어를 비롯하여, 호란이후 보장처로 부각된 강도(江都)의 배후 수군진 역할, 그리고, 안흥량 일대의 협조처를 통행하는 조운선의 안전호송이라고 하겠다. 최근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에서 공개한 안흥진 수군(水軍) 군적부⁷⁶⁾는 조운선의 안전호송을 담당하는 분군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안흥진성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 투고일 2020년 09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3일 ■

76) 문화재청 2020년 6월 4일자 보도자료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李鼎夏·李種文 共編, 1917, 『迂齋紀年』
李敏寧, 1927, 『瑞山郡誌』
陸軍本部, 1968,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한글학회, 1974, 『한국지명총람』충남편 하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安興城』
심정보, 1995, 『한국의 읍성연구』
국립부여박물관, 1997, 『서천 장암진성』
금강문화유산연구원, 1998,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장암진성지역 문화재 시굴조사 약
식보고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안흥진성-성벽절개조사보고서-』
심정보, 2009, 『충청수영성의 축조기법과 보존방안』, 『忠淸水營의 歷史와 文化』, 忠淸
水營學術세미나, 保寧文化硏究會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2, 『보령 충청수영성 학술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4, 『태안 안흥진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전남문화재연구원, 2019, 『서천 장항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사업(장암진성)부지 내 유
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0, 『태안 안흥성(3차) 시굴조사 개략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서태원, 2020, 『조선시대 서해안 방어체계와 안흥진의 설치』,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문광군, 2020, 『조선후기 태안 안흥점사의 재임실태와 특징』,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문경호, 2020, 『태안 안흥진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태안 안흥진성의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방안』

Abstract

Construction and Transfer of Anheungjinseong Fortress

Sim, Jeong-Bo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Korean navy's maritime defense consisted in loading up a battleship with weapons and provisions and in standing by on board, led by the officer. Such a naval system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on-board defense. Such a maritime defense principle had been initiated during the Goryeo period. This principle of on-board defense kept the country from constructing fortifications. During the 15th year of King Seongjong, there was a suggestion of building small stone fortifications in Gyeongsang and Jeolla Provinces in order to store up weapons and provisions there. Some government officials were against this idea, saying that the newly constructed fortifications at military posts would end up being officers' residences. Nevertheless, King Seongjong said, "The project was already launched so we can't stop it. If there is any problem later on, we will need to take separate measures." In this way, the king went on with the construction project. Under these circumstances, a fortress was built first at the Jipo port in October of the 17th year of King Seongjong. By 1522 (17th year of King Jungjong), Joseon built fortifications for the navy stationed at its east and west coasts.

The first construction of Anheungjinseong Fortress is not documented. However, historical documents do explain that the fortress was moved to Hwajeongdo in 1653 (4th year of King Hyojong) and that it began to be built during the 6th year of King Hyojong. Such records are fou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ibyeonsa Deungrok*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of Joseon), *Daedongjiji* (geography book) and *Jeungbo Munheon Bigo* (encyclopedia). Referring to *Daedongjiji*, which describes how the fortress was transferred to Hwajeongdo to be built again there, the “Anheungjinseong Studies Report” says that the fortress was constructed in 1655 (6th year of King Hyojong). The cultural heritage search engine on the websit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lso says that the fortress was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However, *Daedongjiji* makes clear that Anheungjinseong Fortress was moved again from its new location in Hwajeongdo to its original location during the 10th year of King Hyeonjong. In additi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Bibyeonsa Deungrok* elaborate on how the fortress was moved between its old and new locations. This means that Anheungjinseong Fortress was first constructed in its original location and that it was also constructed in its new location in Hwajeongdo. The date of the fortress’ first construction, which doesn’t appear in historical documents, has been unveiled thanks to a stone monument with a text inscribed on it. This monument was discovered in 1993 when Kong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conducted research on the fortress. The text on the monument mentions the “11th year of the Wanli Emperor,” which is 1583 (16th year of King Seonjo). Therefore, the year 1583 came to be regarded as the date of the first construction of the original fortress of Anheungjinseong. Furthermore, two excavation projects of the fortress body of Anheungjinseong led to clarifying construction techniques dating from two historical periods, which came to be known as the period of its first construction and that of its additional construction respectively.

Although a great volume of research has recently been conducted on the occasion of symposiums on Anheungjinseong Fortress, researchers have failed to shed light on the construction and additional work of the old and new fortresses. They have failed to explain the matter because they have overlooked the fact that Anheungjinseong Fortress was in its new location in Hwajeongdo for 16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fortress was moved to Hwajeongdo (4th year of King Hyojong) to the time when

it was transferred again to its original location (10th year of King Hyeonjong). Supposing that the fortress wasn't built in its new location in Hwajeongdo, they have tried to explain the construction of the old (original) fortress by mixing the facts about the new and old fortresses. Consequently, they have wrongly concluded that the fortress began to be built before March of the 7th year of King Hyojong and that it was completed in October of the 7th year of King Hyojong. Such a conclusion distorts the three-month construction work in the old location which was launched in August and completed in October. This is explained in the chapter "Anheung Bangeo Sasamok" in *Bibyeonsa Deungrok*, historical records of the 1st year of King Sukjong.

Today's Anheungjinseong Fortress, whose original and old location is described in historical records, was first constructed in 1583 (16th year of King Seonjo). The fortress was completed from August to October of the 6th year of King Hyojong, during the construction work in its new location. *Bibyeonsa Deungrok* ("Anheung Bangeo Sasamok") doesn't specify when the old fortress was built, generating confusion.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tenure of Gwon Wu, governor of Chungcheong Province who supervised the construction project, it is certain that the fortress was built during the 6th year of King Hyojong. The project mobilized about 2,200 reservists from the left camp, one of the five military camps in Chungcheong Province, as well as monk soldiers.

During the 4th year of King Hyojong, Anheungjinseong was moved to Hwajeongdo and its new fortress was built. This construction work was launched during the 6th year of King Hyojong and completed during the 7th year of King Hyojong. Historical documents say that the construction project caused a commotion throughout the province at that time. This implies that the project would have mobilized workers from all the villages in Chungcheong Province. During the 8th year of King Hyojong, the very existence of Anheungjinseong Fortress was jeopardized due to the water shortage at the new fortress. However, subjects at the Border

Defense Council of Joseon and government officials persuaded the country to keep running the fortress in its new location.

On February 4 of the 10th year of King Hyeonjong, Kim Jwa-myeong, then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said, “The topography of the old fortress of Anheungjinseong was very good but ever since it was moved to its new location, we have had so many problems. Local soldiers have also complained about it while having a hard time.” At this, Heo Jeok, then first vice-premier, suggested moving the fortress to its old location and withdrawing local officials and naval forces from the new fortress. King Hyeonjong approved the suggestion. As a result, Anheungjinseong Fortress, which had been moved to Hwajeongdo in 1653 (4th year of King Hyojong), came back to its old location in 1669 (10th year of King Hyeonjong). The fortress is still found there today.

Key Words : Anheungjinseong Fortress, Hwajeongdo, old location, new location, stone monument with a text, date of construction, date of additional construction, transfer.